

미사일방어 창끝부대 간 소통으로 작전효율 높인다

공군미사일방어사, 운영계장 워크숍 현장경험 나누고 부대 협력체계 강화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미사일방어사)는 17일 예하 미사일방어부대 운영계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미사일방어사와 창끝부대 간 소통을 강화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임무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행사는 최근 적 미사일 위협에 따라 미사일방어 임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부대 운영계장들의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 의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운영계장은 각 미사일방어부대 부지휘관

급 장교다. 평시에는 위기관리·재난관리·기지방어 임무를 통해 부대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고, 적 도발 시에는 방공·미사일방어작전 수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행사는 지휘관 소통간담회, 선배와의 대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부대별 임무수행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방안과 부대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작전센터 견학과 단체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무역량을 향상하고 부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정운(대령) 운영계획처장은 “운영계장은 각 부대의 작전수행과 전투력 발휘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17일 개최한 미사일방어부대 운영계장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뒷받침하는 핵심 직책”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경험과 임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전우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관·군 손잡고 응급의료체계 점검

공군3훈비, 합동 응급처치 훈련 취약시간대 상황 대응 능력 향상

공군3훈비비행단(3훈비)은 17일 관·군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관·군 합동 응급처치 훈련을 전개했다.

3훈비는 일과 후 또는 휴무일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은 늦은 밤 3훈비 관제탑 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상황을 접수한 3훈비 항공의무대대 김지연 중사 등 3명은 즉시 경남 사천시 의료종합상황센터 등에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신고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영외 응급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3훈비 기지방호작전과와 군사경찰대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부대 출입문에 도착하자 응급 차량이 사전에 등록된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항공의무대대 응급인력과 함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



17일 열린 공군3훈비비행단 관·군 합동 응급처치 훈련에서 항공의무대대 김지연(맨 왼쪽) 중사가 동료들과 심정지 환자 발생을 가정해 더미에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미화 상사

했고, 지정된 병원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훈련을 주관한 심중현(대위) 비행간호장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취약시간대 영

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군이 협력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현재 확립된 관·군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을 통해 관·군 합동 응급의료체계를 보완·개선해 응급 상황 대응능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지구 485바퀴 사고 없이 날다

공군20전비 3만 시간 무사고 비행

K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20전투비행단(20전비)은 “3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16일 오후 123전투비행대대 이창민 대위가 탑승한 KF-16 전투기가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수립됐다.

이번 기록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약 3년1개월 동안 영공수호의 임무를 전담하는 KF-16이 하늘을 누비며 이뤄낸 결과

다. 거리로 환산하면 1944만6000여km에 이른다.

이는 지구 둘레를 485바퀴 돌 수 있는 거리이자, 지구에서 달까지 25여 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와 맞먹는다.

이형만(준장) 20전비 단장은 “3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뜻깊은 이정표는 비행단 전 장병이 ‘파이팅 팔콘, 원팀(Fighting Falcon, One Team) 20비’라는 구호 아래 일치단결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무사고 비행의 역사를 계속 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공군20전투비행단 장병들이 16일 3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최지석 하사